

원희룡 장관, “통합정비 통해 분당을 미래도시로 전환”

- 7일 성남분당에서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 진행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7일(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분당구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만큼 30년이 이미 경과한 공동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관심도가 특히 뜨거웠다.
-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부족한 녹지와 주택 노후화로 불편함이 많았으나, 재건축이 어려워 주거 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웠던 만큼 특별법 제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였다.
- 원장관은 “신속한 정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 및 기본방침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당을 주거와 일자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지고 스마트한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합정비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간의 합의와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원장관은 “성남시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미래도시의 모습을 갖춘 창조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토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력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원장관은 간담회 이전 지난 4월 5일 붕괴된 정자교를 방문하여 사고 현황 및 시설물 진단현황과 17개 교량 재시공 계획을 보고받았고,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유사형식 교량의 안전확인에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의 문제에서 예산 부족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 간담회 종료 후, 원 장관은 노후주거 환경을 현장확인 하기 위하여 분당신도시 내 노후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둘러본 후 서현 공공주택지구와 판교-분당간 교통혼잡지를 방문해 성남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3. 5. 7.

국토교통부 대변인